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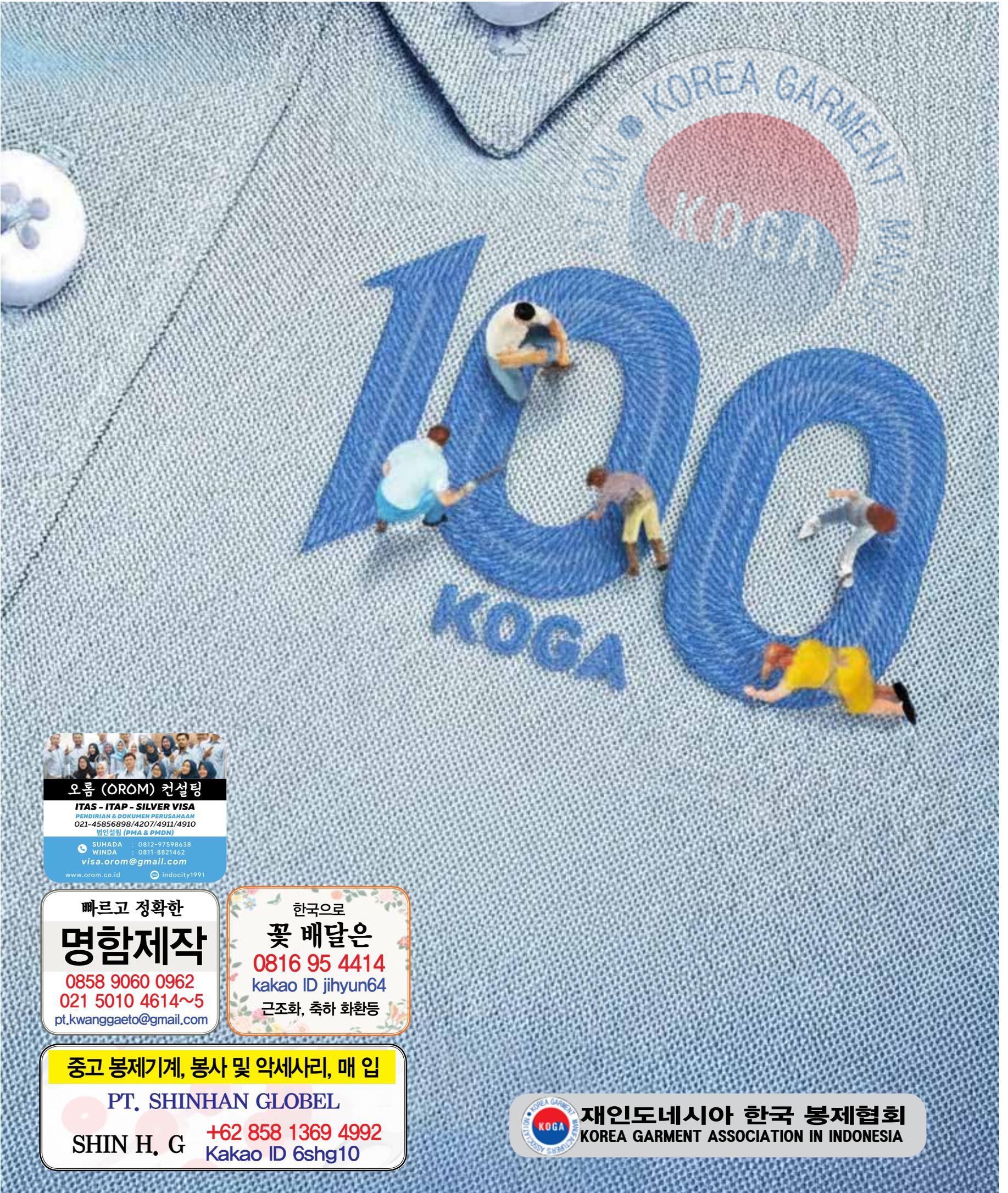
1000

코리아지령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Vol. 100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 월간 코가지 지령 100호를 축하합니다.



오롬 (OROM) 컨설팅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021-45856898/4207/4911/4910
 법인설립 (PMA & PMDN)
 SUHADA : 0812-97598638
 WINDA : 0811-8821462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indocity1991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중고 봉제기계, 봉사 및 악세사리, 매입
PT. SHINHAN GLOBEL
 SHIN H. G +62 858 1369 4992
 Kakao ID 6shg10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KOGA지 100호의 기록과 36년의 헌신, 인도네시아 의류산업의 산 역사를 축하합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회장 김화룡

존경하는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설립 36주년과 KOGA신문 100호 발행이라는 찬란한 이정표를 맞이했습니다. 1980년대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린 우리 봉제 기업들이 이제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추이자, 한인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한 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6년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급변하는 노동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봉제인들은 특유의 근면함과 유연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습니다. 특히 1998년 5월 인도네시아 대탈출 시기에도 우리 봉제인들은 곳곳히 자리를 지킨 역사로 인해 다시 일어 설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땀방울과 노력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협회신문이 어느덧 100호를 맞이했다는 사실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다. 100호라는 숫자 안에는 회원사 간의 유대감, 정보의 공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극복해온 고난의 시간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36년 또한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전환, ESG 경영, 그리고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로 인하여 더욱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단결력과 역경을 극복하는 인내심과 추진력, 혁신 정신이라면, 인도네시아를 넘어 세계 섬유 시장을 선도하는 주역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협회의 36주년과 KOGA신문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Of the Koga, By the Koga, For the Koga"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회장 김화룡

「KOGA」紙 100회 기념사

재인니 한인 봉제협회에서 발간하는 「KOGA」지가 100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호, 한 호 꾸준히 이어져 온 100회의 기록은 단순한 발간 성과를 넘어, 인도네시아 한인 봉제산업의 역사와 성장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봉제산업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동포 사회와 한국 산업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봉제산업이 해외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우리 봉제 기업인들이 발빠르게 인도네시아에 정착하여 큰 성공을 이루었고, 이는 오늘날 인도네시아 내 한인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에서 새롭게 발전한 봉제산업은 비단 인도네시아의 산업 뿐 아니라 한국 섬유·패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며, 양국 간 경제협력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윤순구 대사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경기침체, 높아지는 관세 장벽과 무역전쟁, 인도네시아 인건비 상승 등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봉제 기업인들은 서로 힘을 모아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KOGA」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KOGA」지는 봉제산업과 관

련된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동향을 적시에 전달하고, 글로벌 패션 트렌드와 한국 섬유·패션 산업의 흐름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봉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한국 산업계와의 연계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한인 봉제 기업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으로서 협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 100회를 맞은 「KOGA」지가 앞으로 더욱 충실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우리 봉제 기업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중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재인니 한인 봉제협회 역시 한 단계 더 도약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대사관 또한 「KOGA」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KOGA」지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봉제협회 KOGA지 제100호 발간 축하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온 KOGA지 제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7년 첫발을 내디딘 이래, KOGA지는 우리 한인 봉제산업의 흐름을 기록하고 회원사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100호라는 이 특별한 마일스톤은 단순히 숫자의 누적 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치열하게 발로 뛰 우리 봉제인들의 도전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우리 한인 봉제업의 뿌리가 깊은 곳이며, 여러분은 수십 년간 수많은 고공을 창출하고 현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온 주역들입니다. 글로벌 공



▲KOCHAM 이강현 회장

급망의 급격한 변화와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공정 혁신과 품질 관리로 「K-봉제」의 위상을 지켜내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 속에서도, KOGA지는 협회와 회원사를 잇는 공식 창구이자 한인 봉제산

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위상을 높이는 플랫폼이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KOGA지가 회원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역시 봉제협회와 긴밀히 손잡고, 우리 한인 경제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과 상생의 가치실현을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KOGA지 제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동안 헌신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과 회원사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이강현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4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KOGAZI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0호라는 숫자는 단순한 발행 횟수를 넘어, 인도네시아 봉제업계의 역사와 함께 쌓아 온 시간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KOGAZI는 협회원 한 분 한 분의 현장 이야기와 도전, 그리고 성과를 빠짐없이 담아내며, 우리 업계의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 인건비·원부자재·통관 등 다양한 현안 속에서, KOGAZI가 전해 온 정보와 분석, 정책 동향, 그리고 회원사들의 생생한 경험담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 기업들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되어 주었습니다. 협회의 눈과 귀로서, 때로는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서, 또 회원 간 화합을 이끄는 소통의 장으로서 KOGAZI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김종현

해 온 역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100호는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이정표이자, 앞으로의 새로운 100호를 향해 다시 힘차게 걸어 나가는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KOGAZI가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예리하게 짚어주고, 협회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차세대

봉제인들에게는 소중한 배움의 자료가 되는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역시 KOGAZI와 함께 호흡하며, 우리 봉제협회와 동포사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KOGAZI를 통해 전해지는 따뜻한 연대와 실질적인 정보 교류가, 인도네시아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모든 봉제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KOGAZI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협회 임원 여러분과 편집진, 그리고 모든 회원사 여러분의 앞날에 지속적인 발전과 건승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존경하는 'KOGAZI' 구독자 여러분께

3월 'KOGAZI' 창간 100호라는 뜻깊은 이정표 앞에서 있습니다.

자카르타, 서부자바주, 반텐주에서 중부자바주로 뻗어 나가는 우리 봉제인들의 활약상이 어느덧 100번째 'KOGAZI' 에 담겼습니다.

100호까지 짧지 않은 여정 동안 회원사가 받아드리는 가성비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KOGAZI' 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기쁜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협회지가 인도네시아 봉제 산업의 나침반이 되어 우리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의 창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 명예회장 안창섭

지난 시간 동안 코가회원사의 눈과 귀가 되어준 100호 창간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명예회장 안창섭

100보의 발걸음, 인도네시아 봉제산업의 찬란한 기록을 축하하며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봉제협회 명예회장 배도운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봉제인들의 소중한 소통 창구인 KOGAZI가 통권 100호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7년 창간 이후, 현장의 숨결을 담아 한 호 한 호 정성껏 기록을 이어오며 100호라는 뜻깊은 이정표를 세운 편집진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2008년부터 6년간 협회장으로 봉사하던 시기에, 회원사 간의 '연결과 화합', 그리고 '**'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일' **은 늘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당시 우리가 변화하는 제도와 산업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길을 모색하며 뿌렸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 명예회장 배도운

던 씨앗들이, 이제는 KOGAZI라는 풍성한 결실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공유되고 있음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100호의 시간 동안 KOGAZI는 협회의 눈과 귀가 되어 우

리 봉제인들의 땀과 경험, 도전과 성취를 가감 없이 담아왔습니다. 이제 100호를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KOGAZI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우리 협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든든한 나침반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 기대합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KOGAZI를 통해 축적된 정보와 연대의 힘이 우리 협회회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통권 1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인도네시아 봉제협회의 명예회장 배도운

재인도네시아 한인 봉제협회 KOGAZI 제1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OGAZI는 제가 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협회의 기록을 남기고 회원 간 소통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에서 창간되었기에, 오늘의 100호 발간은 개인적으로도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난 시간 동안 KOGAZI는 단순한 소식지를 넘어, 봉제협회의 다양한 활동과 발자취를 충실히 기록하며 우리 협회의 역사를 차곡차곡 보존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도 협회의 눈과 귀가 되어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회원 간의 이해와 화합을 이끄는 소중한 매개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온 점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러한 기록과 소통의 힘이 있었기에 재인도네시아 한인 봉제협회는 오늘날까지 굳건히 성장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KOGAZI가 변함없이 협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 명예회장 박재한

회의 비전과 가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로 길이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KOGAZI 제1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이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명예회장 박재한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축사] 거친 파도 속에서도 재봉틀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KOGAZI 제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회원사 간 화합의 등불이 되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봉제 산업은 거센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 속에서도 공장의 재봉틀 소리가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소리가 곧 우리의 자부심이자 미래를 향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련 또한 우리가 더 단단한 결실을 맺기 위해 함께 넘어야 할 과정이며, 봉제 협회를 중심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100호라는 대장정의 기록 안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버텨온 동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KOGAZI가 전하는 따뜻한 소통과 정보가 든든한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 수석부회장 서광호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0호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자부심이 되고, 앞으로 써 내려갈 101호가 더 밝은 희망의 기록이 되길 기원합니다. 재봉틀 소리가 울려 퍼지는 현장과 늘 함께하는 KOGAZI가 봉제 협회의 비전을 밝혀주는 변함없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며, 우리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 수석부회장 서광호

지난 10년 간 우리 한국 봉제인의 눈과 귀가 되어준 KOGAZI 제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협회의 자부심이자 소통의 상징인 KOGAZI가 어느덧 제 100호 발간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되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마주하니, 2017년 처음 KOGAZI의 산실을 마련하기 위해 뜨겁게 논의했던 그날의 회의가 다시금 눈앞에 선합니다. 당시 우리의 고민은 명확했습니다. 매년 총회와 세미나, 골프대회 등 다양한 공식 행사를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해 왔으나, 물리적 거리 때문에 혹은 숨가쁜 현장의 일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회원사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그분들께서 느끼셨을지 모를 소외감과 섭섭함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채워드릴 수 있을지가 우리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KOGAZI의 탄생은 바로 그 '미안함'과 '진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행사장에 오시지 못하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 수석부회장 이규백

더라도, 이 소식지를 통해 우리가 한 울타리 안의 가족임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가장 앞장 서서 달리고 있으며, 언제나 회원사를 섬기는 마음으로 곁에 머물고 있다는 그 순수한 열정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난 100호의 종이 위에는 회원사분들에게 드렸던 그 약속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봉제산업의 위기를 돌파하는 정보 전달자로, 때로는 따뜻한 이웃의 소식으로 회원사 여러분의 책상

위에 놓였던 KOGAZI는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협화와 회원사를 잇는 사랑의 가교"였습니다. 이 KOGAZI 활자 하나하나에 담긴 우리의 진심이 현장의 회원사분들께 자부심과 도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KOGA 회원사 가족 여러분, 100호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2017년의 초심을 되새깁니다. 세계 경제 환경은 변해도 회원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KOGAZI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는 디지털 시 전환과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KOGAZI는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길잡이'이자 '가장 따뜻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호를 기점으로 우리 봉제협회와 신문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현장의 기술 혁신을 전파하고 봉제인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중심축이 되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KOGAZI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원사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늘 행운과 번영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과 녹록지 않은 대내외 봉제 산업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한국 봉제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쉬 없이 달려온 KOGAZI 편집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봉제협회 수석부회장 이규백

코가지 지령 1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우선, KOGA 100호지 발간에 축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00호 지 발간의 기쁨이 되는 순간에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교민의 터전에 최근 다양한 직종과 직장이 많이 번창하고, 최근 한류 문화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위상을 높아지면서, 한국관련 산업이 많은 저변을 넓히는 놀라운 변화를 하루가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놀랍기도



▲염정운 한세 법인장

하고, 또한 자부심을 가지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어느 누가 뭐라해도 인도네시아 초기에 한

국인의 터전과 일자리와 교민 세계를 이끌고, 인도네시아 한국 사회의 발판을 이끌어 온 산업은 우리 봉제 산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과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고, 무수한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헤쳐 나가면서 이국 땅에서, 인도네시아인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인도네시아의 봉제 산업에 큰 영향을 가지고 온 KOGA 회원사의 업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이 중심에서 KOGA 협회와 또한 그 회원사 모두의 각고의 노력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큰 거목으로 서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도 잘 견디고 발전을 해 온 KOGA 모든 회원사, 그리고 협회장님 이하 사무국 운영진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영원한 KOGA!, 성장하는 KOGA의 멋진 미래를 기원합니다! 올해 2026년 또한, 모두 건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염정운 한세 법인장



PT. JASON LOGISTIC INDONESIA

글로벌 물류 전문 파트너

Your Professional Global Logistics Partner

장기적 비즈니스 성장을 함께하는 물류 파트너

- Air Cargo
- Sea Cargo
- Warehouse
- Customer Service

JASON 지사

중국: 상하이, 광저우, 선진, 샤이먼, 청도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대만/한국

Ruko Gading Kirana Blok C10 No.10, Kel. Kelapa Gading, Kec.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p: 021-45855919 | Email : cs.team@jli.kr
한국담당자: 박치성 +62 821 1210 0051 | 현지담당자: HENDRA +62 898 1142 2911

KOGA지 1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Daehan Global 사옥

인도네시아 한국인 봉제협회(KOGA) 월간지의 제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PT Daehan Global도 이 뜻깊은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KOGA지는 협회의 눈과 귀가 되어 인도네시아 봉제업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회원사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소통의 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다양한 도전 속에서도 KOGA지는 회원 간의 이해와 공감을 이끔며 협회의 화합과 연대를 굳건히 다지는 중심 매체로 자리매김해 왔고, 더불어 회원간의 소통과 공감을 이

끌며 협회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중심 매체로 자리 잡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동향, 제도변화, 현장의 고민과 해법을 꾸준히 기록해 온 KOGA지는 한인 봉제업계의 발자취이자 앞으로를 비추는 기록물이며, 100호라는 이정표는 그간의 노력과 책임, 그리고 협회를 향한 깊은 사명감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KOGA지가 변함없이 우리 협회의 비전과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 회원사들에게는 신뢰받는 정보의 창으로, 나아가 인도네시아 봉제산업과 한인 사회를 잇는 든든한 가교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KOGA지 1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KOGA와 모든 회원사 여러분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이동규 PT. Daehan Global

티웨이항공, 4월 29일부터 '인천~자카르타' 하늘 길 주 5회 연다

주 5회(월·수·금·토·일) 운항 확정...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따른 노선 이관 조치 3만 5천 동포사회 "고운임 해소 기대" 환영... KTO 자카르타 지사, 관광객 유치 박차

▶ 티웨이항공 인천-자카르타 운항 스케줄(현지 시각 기준/스케줄 변동가능)

일정	노선	편명	출발	도착	요일
2026년 4월 29일 ~ 10월 24일	인천-자카르타	TW 155	15:10	20:10	월·수·금·토·일 HaninPost
	자카르타-인천	TW 156	21:50	07:05 (+3)	

▲티웨이항공은 4월 29일부터 인천 자카르타 왕복 노선을 운항한다.

라타 등 인도네시아 내 주요 관광지로 향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관광 수요 또한 풍부하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번 스케줄 오픈을 통해 상용 수요와 관광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고, 고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만 5천 동포사회 "독과점 깨졌다" 환영... 양국 교류 활성화 기폭제

이번 취항 소식에 인도네시아 현지 한인 사회는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약 3만 5천여 명의 한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나, 그간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등 대형 항공사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성수기 좌석난과 상대적으로 높은 항공 운임이 동포들과 기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자카르타 현지의 한 동포는 "LCC 진입은 동포 사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며 "티웨이항공의 취항으로 실질적인 항공료 인하 효과와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관광' 붐 조성... 한국관광공사, 인바운드 유치 총력전** 항공 노선 확대에 발맞춰 한국관광공사(KTO) 자카르타 지사 또한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 세계 방한 관광객 순위 9위,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4위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KTO 자카르타 지사는 2025년 방한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 목표를 36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27만 8,575명) 실적은 물론, 2024년 유치 실적(33만 6,185명)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를 위해 공사는 가족 여행, 스포츠, 의료·웰니스,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등 타겟별 맞춤형 프로모션을 전개하며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의 신규 취항이 연간 35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방한 수요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국 간 인적 교류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업계 전문가는 "티웨이항공의 자카르타 노선 진입은 장거리 노선에 대한 LCC의 운영 능력을 검증받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중장거리 노선에 특화된 서비스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한인포스트)

창간 100호의 금자탑을 축하합니다!



▲세아상역 인도네시아 총괄법인장 편도균

먼저 KOGA지 100호 발간이라는 기념비적인 결실을 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호 발행을 시작으로 한 호, 한 호를 쌓아 올리며 100호에 이르기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얼마나 많은 땀방울과 치열한 고민이 있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다해오신 임원분들의 열정

덕분에 우리는 매번 소중한 정보와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의 100호를 자랑분 삼아,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미래에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응원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변함없는 사명감과 헌신으로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오신 임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1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쌓인 시간이 아닌, 독자들과 쌓아온 단단한 신뢰의 증거일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니 봉제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도움주셨으면 하며, 창간 100호의 금자탑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KOGA 협회의 멈추지 않는 혁신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세아상역 인도네시아 총괄법인장 편도균 드림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은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미 대법원 판결에 트럼프 관세 제동...인니 한숨 돌려



▲자카르타 만중 뿌리옥항 자카르타 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 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 체결한 신규 양자 무역협정의 후속 조치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협정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워싱턴 DC에서 서명된 미-인도네시아 상호무역협정(ART)은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19%의 대미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당초 미국이 경고했던 32% 관세에서 낮아진 세율이다.

그러나 협정 체결 다음 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수십 개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광범위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한 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넘어섰으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와 법적 근거로 삼은 조항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이후 미국이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들의 법적 지위도 불확실해졌다.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1일 성명을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국내 정치를 존중하며 상황 전개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뿌라보워 대통령은 당시 워싱턴에 머물고 있었으며, 그와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무역협정(ART) 공식

서명에 앞서 무역 협정 이행약정서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도 경제조정장관이 상호무역협정(ART)에 공식 서명했다.

미 헌법은 관세 부과 권한을 원칙적으로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가 법률로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다. 지난 10개월간 미국이 다수 국가에 대해 위협하거나 부과한 관세는 모두 의회가 아닌 대통령 발의로 시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정당화했다. 이 법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금융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고 지속적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했다. 행정부는 법 조항에 포함된 ‘규제’와 ‘수입’이라는 단어를 관세 부과와 관련해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단어들만 그러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며 관세 조치의 법적 기반을 부정했다.

판결이 나온 같은 날 백악관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조항은 최대 150일간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은 우선 10%의 포괄 관세를 부과한 뒤 곧 15%로 인상했다. 현재 유효 관세율이 상호무역협정(ART)에서 합의된 19%보다 낮은 15%인 점과 관련해 뿌라보워 대통령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정부 관계자들도 판결 이후 별도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미국경제자유프로젝트(American Economic Liberties Project)의 ‘리싱크 트레이드(Rethink Trade)’ 프로그램 책임자인 로리 월라치는 22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IEEPA 관련 의견서에서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에만 유용하며 현재 미국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22조를 사용하려 하면서 국제수지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8페이지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라치는 15% 관세가 향후 5개월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그 이후 연장은 법정 다툼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당장 비준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비준할 경우 자발적으로 19%의 높은 관세를 ‘고정’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워싱턴은 15%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인도네시아 상호무역협정은 양국이 각자의 제도적 협의 및 입법부 비준 등 국내 법적 절

차가 완료됐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뒤 90일 후 발효된다. 월라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협상된 합의들이 법적 정당성을 갖는지 의문”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 정부가 위협했던 수준의 관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된 만큼, 인도네시아와 같이 양자 협정을 맺은 국가는 협정 비준과 이행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ART에 따라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협정 체결의 이점이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니 올해 르바란 1억 4천만 대이동 예상... 무료 무딕으로 교통난 완화



▲2025년 3월 28일, 수백만 대의 무딕 차량 행렬(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르바란(Idul Fitri)을 앞두고 대규모 무딕(mudik, 귀향) 인파에 대비해 무료 교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극심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두디 뿌르와간디 교통부 장관은 올해 무료 무딕 프로그램을 통해 버스 401대를 34개 지방 목적지에 투입하고, 장거리 선박 이용객을 대상으로 5만 장의 무료 일 반석 승선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바 지역에서는 2만8,182명을 목표로 무료 열차표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히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의 귀향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관은 무료 무딕 외에도 성수기 이동 수요에 맞춰 각종 운임 할인 정책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교통부 최신 조사에 따르면 오는

됐다. 두디 장관은 이를 “국가 이동의 핵심 허브”로 규정하고, 주말 동안 데디 몰라디 주지사를 만나 간선도로와 상습 정체 구간 관리에 대한 주정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교통부는 비공식 노점시장과 도로변 장애물 단속, 관광지 질서 정비, 철도 건널목 관리 강화, 간선도로 및 유료도로의 교통공학 적 운영 강화 등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제(FWA)도 시행한다. 공무원과 민간 부문 근로자가 성수기 이동 시점을 분산하도록 3월 16일, 17일, 25일, 26일, 27일에 유연근무를 적용한다. 올해 이돌피드리는 정부와 이슬람 단체 간 이스밋(isbat, 공식 확정)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현재로서는 3월 21~22일경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PT. Indokon Multi Sarana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투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IMS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PT. INDOKON MULTI SARANA Jakarta, Indonesia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실외 비디오투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TR, 인도네시아 수출 필수 'SNI 인증' 획득 돕는다 공인인증기관 IGS와 협약... 소비재·완구류 수출 필수 인증 협력



▲에코 위보워 IGS 창립자, 응아디만 사스트로 IGS 대표, 김현철 KTR 원장(왼쪽부터)이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R이 인도네시아 수출에 필수적인 'SNI 인증' 획득 지원에 나선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김현철)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제품인증기관 IGS(Integrita Global Certificate)와 소비재·완구류 등 분야의 SNI 인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TR과 IGS의 협약은 인도네시아의 SNI 인증 품목 확대 정책에 따른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SNI 인증은 인도네시아 자국 내 소비자 보호 및 제품 품질보증을 위한 필수 인증제도로 인증 대상 품목 수출기업은 인도네시아 제품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시험 및 인증 획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KTR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완구류·소비재를 중심으로 SNI 인증 품목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은 현지 인증기관 섭외와 의뢰에 적잖은 시간과 비용 및 언어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IGS는 인도네시아 국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소비재·완구류 중심 SNI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소비재·완구류 수출기업은 KTR을 통해 SNI 인증에 필요한 제품시험과 적합성 검토를 더욱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두 기관은 또 인도네시아 규제 정보교류 등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의 규제 대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KTR은 55개국 260개 기관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 전 세계에 걸쳐 국내 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지원을 두고 전기전자·식품·화장품·산업기자재·철강·의료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필수 인증 획득을 현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경제대국으로 수출기업의 유망시장 중 한 곳"이라며 "우수한 국내 제품이 경쟁력을 갖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지 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ZDNET korea]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김재훈의 세무상식

3월 31일 개인소득세 신고,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나

(Coretax 전환과 자산·부채 입력 강화에 주목)

인도네시아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납세자라면 매년 3월이 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개인소득세 연간신고(SPT Tahunan Orang Pribadi)이다. 인도네시아 세법상 개인 소득세 연간신고 기한은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일반적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마감일은 매년 동일하지만, 올해 신고 시즌에는 납세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변화가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 시스템의 전환이다. 그동안 많은 납세자들은 DJP Online을 통해 개인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DJP)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Coretax 시스템을 중심으로 신고·납부·자료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고 과정에서 화면 구성, 메뉴 구조, 제출 방식이 달라졌고,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제출 버튼을 눌렀는데도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신고 완료를 증명하는 전자접수증(BPE: Bukti Penerimaan Elektronik)을 반드시 확인하고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적으로는 BPE가 발급되지 않으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변화는 자산(Harta) 및 부채(Utang) 입력 방식의 강화이다.

Coretax 화면에서는 자산을 입력할 때 취득가(Harga Perole-

han)와 시장가(Nilai Pasar)를 각각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취득가 중심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자산의 현재 가치까지 함께 입력하도록 요구되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졌다. 다만 이 부분은 "시장가를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자산 흐름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자산 입력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끝나지 않는다. 세무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시장가 자체보다 전년 대비 자산 증가 폭이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은행잔액이 급증하거나, 차량·부동산 등 고가 자산이 새로 취득된 경우에는 향후 소명 요청(SP2DK)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자금 출처가 소득, 저축, 가족지원, 자산 처분 등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채 또한 마찬가지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차량할부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채 잔액을 함께 입력해야 자산 증가가 과도하게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은 "세금이 0 원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김재훈 대표

추가 납부(Kurang Bayar)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 전에 먼저 e-Billing을 발급받아 납부하고, 납부번호(NTPN)를 입력해야 신고가 최종 제출되는 구조이므로, 납부와 신고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3월 31일은 매년 돌아오는 신고 마감일이지만, 올해는 Coretax 전환으로 인해 신고 방식 자체가 달라졌고, 자산·부채 입력 항목이 보다 강화되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단순한 의무로만 생각하기보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 흐름을 정리하는 연간 점검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마감일 직전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하다면 3월 중순 이전에 미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을 권한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자문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kimjhoon@bngconsulting.co.kr

유성 종합건설

PT. YUSUNG JAYA ABADI

기술로 짓고 신뢰로 완성합니다.

건설 기계 전기 배관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유성열 대표 : 0812 8037 0303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Pos Bitung15810
yusungjaya1@hotmail.com / 021 598 0222



대한항공, 4월 29일부터 한 달간 자카르타 노선 '주 7회→2회' 대폭 감편 검토

아시아나 합병 시정조치 일환... 4월 29일~5월 31일 화·목 주 2회만 운항 검토
티웨이항공 진입 따른 슬롯 조정 여파... 대한항공 "6월 정상화 추진 중" 아시아나 정상운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따른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운항 편수가 일시적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사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한 경쟁 당국의 시정 조치 이행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사는 오는 2026년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자카르타 왕복 노선의 운항 스케줄을 기존 주 7회(매일 운항)에서 주 2회로 축소를 검토한다고 11일 밝혔다. 확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대한항공의 자카르타 노선은 화요일과 목요일, 단 이틀만 운항하게 된다.

'합병 시정 조치' 직격탄... 한 달간 운항률 70% 이상 급감
이번 운항 축소는 단순한 비수기 감편이 아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통합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경쟁 제한 시정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각국 경쟁 당국은 양사의 결합으로 인해 독점이 우려되는 일부 노선에 대해 슬롯(Slot·항공기 이착륙 횟수) 반납

및 운수권 재배분 등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여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항 횟수는 줄어들지만, 기존에 배정된 화요일과 목요일의 출발 및 도착 시간은 변경 없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갑작스러운 운항 축소로 인해 해당 기간 이미 항공권을 예매한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감편 대상 날짜에 이미 예약 및 발권을 마친 고객들을 대상으로 오는 2026년 2월 11일부터 대체 항공편 안내 등 재안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과 가루다 운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항될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 진입과 맞물린 '요일 나누기'... LCC 반사이익
업계에서는 이번 스케줄 변경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의 자카르타 노선 진입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한인 여행사 관계자는 "4월 29일부터 티웨이항공이 월,

수, 금, 토, 일요일 주 5회 운항 스케줄을 편성한 것으로 안다"며 "결국 티웨이항공이 운항하지 않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대한항공이 운항할 수 있도록 슬롯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독과점 해소를 위해 국적 대형 항공사(FSC)가 점유하던 알짜 노선의 운수권 일부를 LCC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 기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 "6월부터 정상화 추진 중이나 확정 아냐"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사 관계자는 한인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과 관련한 경쟁 제한 시정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4월 29일부터 5월 말까지 운항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운항 횟수나 출도착 스케줄 등은 규제 당국 및 공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이후의 항공편 일정 역시 추가적인 변경 가능성이 열려 있어, 하반기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획 중인 승객들은 향후 공지될 스케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은 "양대 항공사의 통합 과정에서 노선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지만,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스케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항공사 측의 선제적이고 세심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인포스트)

인니 부패척결위, 세관 비리 적발... 짝퉁 반입 대가 매달 70억 루피아 책거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 (사진=KPK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이하 KPK)가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뇌물 수수 의혹을 적발했다.

6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KPK는 세관 관계자들이 위조 상품과 미신고 물품의 반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매달 약 70억 루피아의 불법 자금을 받아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KPK는 지난 주 초 여러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세관총국(DGCE) 소속 공무원 3명을 포함해 총 6명을 뇌물 수수 사건 피의자로 입건했다. 부디 뿌라스띠요 KPK 대변인은 불법 수입 물품 통관을 조건으로 금품이 매월 정기적으로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부디 대변인은 지난 5일 "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된 뇌물 금액은 매달 약 70억 루피아에 달한다"며 "통과된 물품에는 위조 신발을 비롯한 각종 가짜 상품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피의자 6명 가운데 5명은 구금됐으나, 나머지 1명인 수입업체 블루레이(Blueray)의 소

유주 존 필드는 체포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다른 피의자로는 세관 공무원인 리잘 전 단속·수사국장, 시스쁘리안 수비악소노 세관 정보국장, 정보국 소속 오를란도 하모낭안과 함께 블루레이 직원 안드리, 테디 꾸르니아완 등 2명이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KPK는 루피아와 외화를 포함해 총 405억 루피아 상당의 현금, 5.3킬로그램의 금, 고급 손목시계 1점 등을 압수했다.

KPK는 이번 사건이 인도네시아 수입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며, 공무원과 민간 부문 관계자를 가리지 않고 부패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KPK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뇌물 수수 관행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돼 왔는지, 이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ISO 9001 인증, ISO 9001 취득, ISO 9001 취득, INNOBIZ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CE 인증마크 취득, RAMS in Railway Systems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인도네시아, 새 이민 정책 ‘재외동포’ 와 ‘골든 비자’ 본격 가동... “대상 · 목적 달라”

이민 · 교정청, 두 제도의 차이점 상세 설명... GCI는 ‘혈통과 유대’, 골든 비자는 ‘투자’ 에 방점 GCI는 영구 체류권 부여 · 5년마다 신고제... 골든 비자는 최대 10년 체류 · 고액 투자 필수

인도네시아 이민 · 교정청(Kemmenipras) 산하 이민총국이 최근 도입된 ‘글로벌 시티즌 오브 인도네시아(Global Citizen of Indonesia, 이하 GCI)’ 재외동포 정책과 기존의 ‘골든 비자(Golden Visa)’ 정책 간의 명확한 차별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두 제도 모두 외국인에게 인도네시아 내 체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도입 취지와 대상, 운영 메커니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율디 유스만(Yuldi Yusman) 이민총국 직무대행(Plt) 총국장은 2일 자카르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두 비자 정책은 본질적으로 메커니즘과 대상(주체), 그리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서로 다르다” 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GCI: 디아스포라의 귀환과 혈통의 유대 강화
2026년 1월부터 발급이 시작된 GCI는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재외동포)와 국가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다. 율디 총국장은 “GCI는 전(前) 인도네시아 국민(WNI)과 그 가

족,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고국인 인도네시아에 다시 정착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GCI 비자의 발급 대상은 매우 구체적이다. △전 인도네시아 국민(E32E) △특수 전문성을 보유한 전 인도네시아인(E32F) △2촌 이내의 전 인도네시아인 후손(E32G) △특수 전문성을 가진 전 인도네시아인 후손(E32H)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족 관계를 증시하여 △인도네시아의 합법적 배우자인 외국인(E31A) △기존 PTAS/ITAP 소지자의 배우자(E31B) △외국인과 인도네시아인 사이의 합법적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E31C)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가장 큰 특징은 체류 기간이다. 최장 10년까지 체류가 허용되는 골든 비자와 달리, GCI는 발급 즉시 영구적인 체류 자격이 부여된다. 소지자는 5년마다 체류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만 거치면 되어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골든 비자: 경제 성장을 위한 고액 투자 유치
반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골

든 비자는 철저히 ‘경제적 기여’ 와 ‘투자 촉진’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액 자산가와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골든 비자의 유형은 개인 투자자, 법인 투자자, 세컨드 홈(Second Home) 신청자, 글로벌 인재, 세계적 명사 등으로 세분화된다. 체류 기간은 투자 규모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부여되며, 만료 후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 요건은 GCI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5년 체류를 위해서는 미화 250만 달러, 10년 체류를 위해서는 미화 5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법인 투자자의 경우 모기업의 임원(이사 · 감사 등)이 체류하기 위해 2,500만 달러(5년)에서 최대 5,000만 달러(10년)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

법인 설립을 원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국채나 상장기업 주식,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5년 체류 시 35만 달러, 10년 체류 시 70만 달러를

예치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재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재정 요건과 비금전적 기여의 균형
이민총국은 두 제도의 세부 요건 차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GCI 제도의 경우,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재정적 부담은 골든 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GCI 신청자는 국채, 주식, 뮤추얼 펀드, 부동산 등 금융상품에 대한 경미한 수준의 투자 약정이나, 월 최소 1,500달러(또는 연 15,000달러) 수준의 소득만 입증하면 된다. 특히 ‘전략적 전문성’ 경로를 통해 GCI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투자 약정 없이 소득 증빙과 중앙정부의 보증이 포함된 초청장 제출만으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

하기 위한 유연한 조치로 풀이된다.

율디 총국장은 이번 성명을 마무리하며 “정부는 GCI를 통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도네시아 혈통을 가진 세계 시민들과의 유대를 회복하고자 한다”면서 “단순한 자본 유치를 넘어, 그들이 가진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와 같은 ‘비금전적 가치’ 가 인도네시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처럼 이민 정책을 다각화함에 따라, 향후 해외 자본의 유입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사회와의 인적 · 문화적 교류 또한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포스트)

중고 봉제기계, 봉사 및 악세사리, 매입

PT. SHINHAN GLOBEL

SHIN H. G **+62 858 1369 4992**
Kakao ID 6shg10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성웅 Hp : 0812 9512 8990

★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bakchan@daum.net

“인도네시아서 원화로 바로 QR 결제... 올해 4월부터 시행”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와 페리 와르지오(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가 통화스왑 계약 연장 합의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올해 4월부터 한국 여행객이 인도네시아를 여행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앱으로 QR코드(QRIS) 결제가 가능한 현지 통화 직거래 방식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양국 방문객은 상대국 가맹점에서 자신의 모바일 결제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전과 수수료 등 부담 낮출 수 있게 된다.

현지 통화 직거래 체제(LCT, Local Currency Transaction)와 결합해 결제 편의성을 높인 이 제도는 미 달러화를 거치지 않고 자국 통화끼리 곧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 관광과 교역 등 실물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페리 와르지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5일 양국 간 QR 기반 지급 서비스 연계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QR 지급서비스 연계는 양 중앙은행이 2024년 7월 양국 간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추진해 온 결과이다. 한은은 추후 다른 아세안 국가로도 국가 간 QR기반 지급 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헬리노스 웨어, 26S/S ‘경량’에 집중

패커블 및 포터블 구조로 활용도 높여
심볼 ‘이클립스’ 확장한 윈드셸 & 백팩 핵심 아이템 선보



▲ ‘헬리노스 웨어’가 26S/S 시즌 자연 속 ‘이클립스(Eclipse)’로부터 기술과 미학이 교차하는 순간을 포착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헬리노스 웨어’가 26S/S 시즌 자연 속 ‘이클립스(Eclipse)’로부터 기술과 미학이 교차하는 순간을 포착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헬리노스 웨어는 26S/S 시즌 이클립스를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이클립스 팩 윈드셸(Eclipse Pack Windshell)’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량 아이템을 선보인다. 이클립스 팩 윈드셸은 발수 및 UV 프로텍트 기능을 갖춘 도레이(TORAY)사 20D 2-Way Stretch 소재를 사용해 봄 초여름에 입기 좋은 경량 바람막이다.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성과 내부 열을 빠르게 배출하는 통기성, 그리고 가벼운 비를 막아주는 발수성을 갖춘 초경량 아우터로 이클립스 패션을 통해 독자적인 실루엣을 완성했다. 언제든 꺼내 입을 수 있게 가볍

고 압축 가능한 구조를 구현한 포터블(Portable) 설계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함께 공개되는 ‘이클립스 라이트 팩(Eclipse Light Pack)’은 15L와 20L 두 가지 용량의 백팩으로 출시된다. 특히 이클립스 라이트 팩 15는 스마트폰보다 가벼운 약 170g의 초경량 무게로 가볍지만 견고한 30D 코듀

라 립스탑(CORDURA Ripstop) 소재를 사용했다.

내부 분리 포켓 설계를 통해 언제든지 압축 가능한 패커블(Packable) 구조를 갖췄다. 메시 소재의 주머니와 등산 스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더해 다양한 수납 환경을 고려했다.

이클립스는 헬리노스 웨어가 25년도 하반기 론칭과 함께 선보인 ‘에디션 시리즈’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심볼이기도 하다.

론칭과 함께 선보인 이클립스 팩 다운자켓과 이클립스 팩 다운베스트는 모듈화된 패널 구조를 적용해 기능성과 설계 미학을 동시에 구현한 경량 다운으로, 발매 후 한 달도 안되어 완판을 기록한 바 있다.

헬리노스 웨어 26S/S 시즌 제품은 2월 12일부터 헬리노스 웨어 공식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순차 출시된다. 시즌 첫 발매에서는 S/S시즌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경량 아이템인 이클립스 라이트 팩을 비롯해 라이트 3L 셀자켓, 3D 심리스 베이스레이어, 어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헬리노스 웨어 관계자는 “26S/S 시즌은 기술과 미학이 교차하는 경량 설계를 바탕으로, 환경과 상황에 따라 형태와 기능이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디자인에 집중했다”며 “이를 통해 헬리노스 웨어의 정체성인 ‘웨어러블 기어(Wearable Gear)’ 개념을 아웃도어와 도심의 경계를 허문 봄·여름 컬렉션으로 풀어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헬리노스 웨어는 올해 상반기부터 백화점 입점과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중심으로 유통 채널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CFDA · 오픈AI, ‘디자이너 중심’ AI 협업 모델 만든다

기술 아닌 패션에 중심에 둔 2년짜리 이니셔티브

미국 패션 디자이너 협의회(CFDA)와 OpenAI는 지난 9일(현지시각) 2년간 진행되는 공동 이니셔티브 ‘CFDA & OpenAI 이노베이션 허브’를 공식 발표하고, 미국 패션 산업 전반에 시를 체계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패션 퍼스트(fashion-first)’ 접근이다. 기술을 앞세우기보다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실제로 직면한 문제 즉 디자인 개발의 효율성, 운영 프로세스의 복잡성, 소비자 접점에서의 개인화 한계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미국 패션 디자이너 협의회는 OpenAI와 함께



▲CFDA와 OpenAI가 AI 혁신 허브를 설계한다. 사진=AI이미지(ChatGPT)

디자이너·브랜드와 시 툴 개발자를 1:1로 연결하는 구조화된 협업 모델을 설계했다.

프로그램 1년 차에는 6개 패션 브랜드와 6개 시 툴 빌더가 선발돼 연간 협업에 참여한다. 각 페어는 단발성 실험이 아닌 연중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멘토링과 기술 지원, 그리고 재정적 후

원을 결합한 형태로 파일럿 프로젝트 또는 개념검증(PoC)을 개발한다. 다뤄질 과제는 창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디자인과 콘텐츠 제작은 물론, 공급망·운영 관리, 고객 경험 등 패션 비즈니스 전반이 대상이다.

운영 일정 역시 명확하다. 봄 시즌에 프로그램을 공식 개시하고, 초기 단계로 하루짜리 ‘이노베이션 스프린트’를 열어 시 개발자들이 패션 특화 유스케이스를 집중적으로 제안·시연한다. 이후 경쟁 및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협업 페어를 확정하고, 임원급 멘토링을 병행한다. 성과는 단순 발표가 아니라 업계 확산을

연두에 둔 실증 결과 공유의 장으로 설계됐다.

재정 및 기술 지원도 구체적이다. OpenAI는 총 30만 달러를 초과하는 그랜트를 제공하며, 참여 팀에는 OpenAI 툴에 대한 무제한 접근과 API 크레딧이 부여된다. 이는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비용 부담 없이 실제 업무 환경에서 시를 시험하고, 반복 개선을 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CFDA는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디자인, 고객 경험, 제조, 지속 가능성, 접근성·포용성,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책임감 있는 시 활용 기준을 축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현장 적합성과 윤리적 사용을 우선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COSMO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Seoul Premium Textile 2026 참가기업 모집

프리미엄 섬유소재 큐레이션 전시회, SPT 2026



▲서울 프리미엄 텍스타일(Seoul Premium Textile 2026, 이하 SPT 2026)의 얼리버드 신청을 마감하고 선착순으로 일반참가모집을 받고 있다.

(사)한국섬유수출입협회(회장 방주득, 이하 섬유협)는 프리미엄 섬유소재 큐레이션 전시회인 ‘서울 프리미엄 텍스타일(Seoul Premium Textile 2026, 이하 SPT 2026)’의 얼리버드 신청을 마감하고 선착순으로 일반참가모집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고부가 섬유소재 제작 및 수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 프리미엄 섬유소재 기업과 글로벌 패션 수요기업 간의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국산 소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회는 참가기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미주, 유럽 등 섬유 선진국 및 신흥국의 구매력 있는 글로벌 바이어 50여 명을 직접 서울로 초청한다.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사전에 파악된 바이어의 수요와 참가기업의 주력 품목을 정밀 분석하여 현장에서 ‘1:1 비즈니스 매칭 상담’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담이 실제 본 계약으로 이어지는 실적 중심의 성과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SPT 전시 기준, 국내외 패

션 브랜드, 벤더·에이전트, 소재 소싱 전문 기업 등 실수요 바이어 약 1800여명이 전시에 참여했으며, 다수의 바이어가 주력 소재 상담, 샘플 요청, 후속 미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창출했다. 국내외 주요 방문 브랜드로는 ON, Diesel, Stone Island, C.P Company, Ralph Lauren, Lilly Pulitzer, 삼성물산, 신세계인터내셔널, 코오롱FNC, 안다르, 신원, K2, 세아상역 등이다.

국내 패션 브랜드 및 벤더 소싱 담당자 2000여명, 해외 유력 브랜드, 에이전트 및 바이어 조직 50여개사를 중심으로 바이어 초청을 추진할 계획이며, 참가기업의 주력 소재 및 타깃 시장에 맞춰 사전 수요조사 기반 바이어 매칭 상담을 운영한다. SPT는 원사·원단·수요기업을 연결하는 ‘스트림 협력 구조’를 전시 운영에 반영한다. 공동 개발, 공급 연계 등 협업 논의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 모델 발굴 및 MOU 체결을 추진하고, 전시 이후에도 후속 협업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기간에는 최신 글로벌 섬유 트렌드와 시장 동향을 공유

하는 세미나와 함께, 우수 소재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K-Textile 어워즈’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참가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한국섬유수출입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섬유소재 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초청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번 SPT가 국산 고부가 섬유소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즈니스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얼리버드 신청이 기업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감되었으며, 현재 잔여 부스에 대한 일반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중이다. 모집 규모는 약 100개사 내외로, 모집 정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발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섬유수출입협회의 Ktextile.net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기업성장지원팀(02-6284-50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섬유 재활용의 최종보스 ‘스판덱스’ 해결법 찾아라

패션 포 굿, ‘스트레칭 서클러리티’ 협력프로젝트 출범



▲스판덱스 재활용을 위한 스트레칭 서클러리티 프로젝트가 출범했다. 사진=게티이미지

패션 생태계 통합을 위해 설립된 ‘패션 포 굿(Fashion for Good)’이 엘라스테인(스판덱스) 대체재 도입을 위해 리바이스, 랄프 로렌, 베스트셀러, 샤넬, 인디텍스, 오토 그룹 등과 협력 프로젝트 ‘스트레칭 서클러리티(Stretching Circularity)’를 출범한다.

이 프로젝트는 소규모 시험 및 시제품 의류 제작을 통해 바이오 기반 및 재활용 엘라스테인 솔루션을 검증함으로써 순환형 섬유 경제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 장벽 중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다.

패션 포 굿에 따르면, 모든 의류의 약 80%에 존재하는 엘라스테인은 신축성과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농도(일 반적으로 면이나 울 의류에는 1~5%, 폴리에스터나 폴리아미드 의류에는 최대 20%)로 첨가되는 소재다.

엘라스테인은 두 가지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업계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과 비재생 자원 소비를 증가시키고, 둘째, 극소량이라도 섬

유 재활용 원료에 오염 물질로 작용하여 폴리에스터나 면과 같은 대량 생산 섬유의 섬유 대 섬유 재활용을 저해한다. 이는 사실상 대다수 의류의 순환 경제를 막아 업계가 다운사이클링이나 매립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게 만든다.

스트레칭 서클러리티 프로젝트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는 바이오 기반 소재 및 기타 원료를 포함한 대체 원료로 만든 차세대 엘라스테인 소재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는 기능성 티셔츠(엘라스테인 10%)와 일반 티셔츠(엘라스테인 2%) 등 시연용 의류 제작이 포함된다.

또 하나는 새로운 재활용 혁신 기술을 통해 생산된 재생 엘라스테인 테스트다. 패션 포 굿에 따르면, 두 작업 모두 성능, 환경 영향, 경제적 타당성 및 확장성에 대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파일럿 규모의 검증 방식을 따른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 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 관광부, 노동부, 할랄청, 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주요브랜드 2026 광고촬영스토리 “당신의 옷장을 채울 옷은?”



막스마라, 역동적인 대비로 표현한 현실과 상상의 경계

이탈리아 럭셔리 패션 하우스 막스마라가 다가오는 시즌을 맞아 현실과 상상, 그 경계에 의도적으로 형성된 역동적 대비를 섬세하게 탐구한 2026 봄 캠페인을 공개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장면 속 긴장감이 이번 캠페인의 중심을 이루며, 견고한 현대성을 상징하는 막스마라의 여성은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에 자리한다.



리바이스, 로제와 조명한 ‘오리지널리티의 본질’

리바이스가 오리지널리티의 본질을 ‘뒷모습’이라는 유틸리티 있는 시선으로 풀어낸 캠페인을 공개했다. 유명 셀럽부터 일상 속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오직 데님으로 완성된 ‘뒷모습’으로 담아낸다. 이를 통해 리바이스와 함께한 변화의 순간과 개인적인 서사를 상징적으로 전달한다. 아티스트 도이치, NBA 챔피언 셰이 길저스-알렌산더 등이 함께했다.



컨버스, ‘솔직한 순간’으로 담아낸 새로운 세대의 감성

컨버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완벽하게 연출된 이미지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솔직한 순간에 가치를 두는 새로운 세대의 감성에 주목했다. 졸업식과 입학식 등 신학기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순간을 배경으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감정과 태도를 현실감 있게 담아냈다. 서툴지만 유쾌하고, 다소 어색해도 그 자체로 살아있는 순간을 포착한다.



골든구스, 시간의 흔적이 깃든 ‘사랑의 의미’

이번 트루스타 캠페인 ‘Meanings of Love’는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부터 우정, 그리고 소울메이트 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조명한다.

진솔한 스토리텔링과 일상의 순간들을 통해, 관계가 지닌 가장 솔직하고 인간적인 연결의 가치를 담아내며, 트루스타 스니커즈를 자신에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의 상징으로 표현했다. 새로운 컬러웨이로 확장된 라인업이 돋보인다.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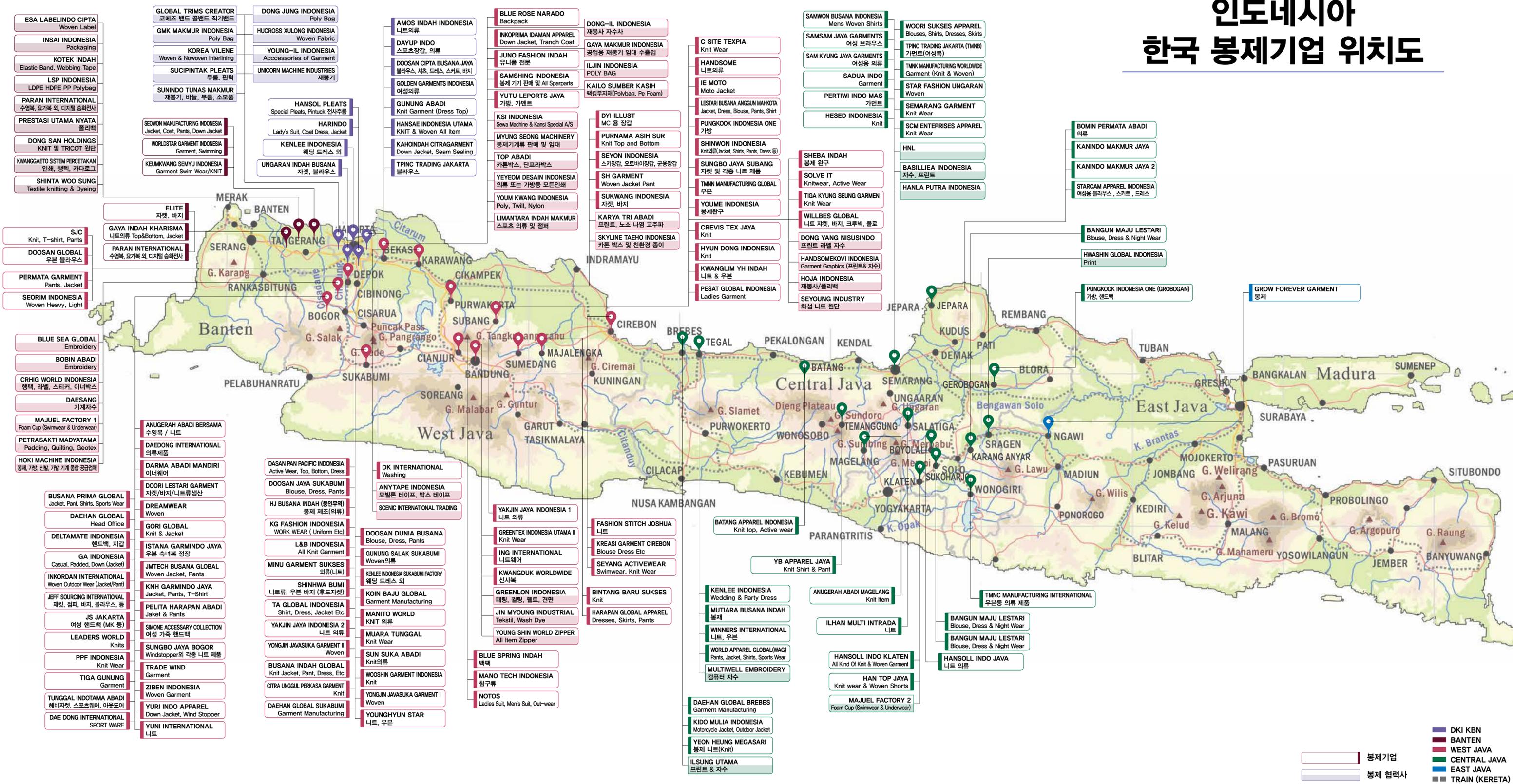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인도네시아 한국 봉제기업 위치도



인도네시아 한국 봉제산업의 역사 및 KOGA 소개

한국계 봉제업체, 인니 봉제 수출에 70% 기여

글 : 데일리 인도네시아 대표 신성철



1970~1980년대 한국 산업화를 이끈 호자였던 섬유·봉제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으로 오늘날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노동집약산업으로 대표되는 이들 산업은 1980년대 말부터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이전하면서 쇠락하기 시작했다.

1970~1980년대 한국 산업화를 이끈 호자였던 섬유·봉제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으로 오늘날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노동집약산업으로 대표되는 이들 산업은 1980년대 말부터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이전하면서 쇠락하기 시작했다.

1990~1980년대 한국 산업화를 이끈 호자였던 섬유·봉제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으로 오늘날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노동집약산업으로 대표되는 이들 산업은 1980년대 말부터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이전하면서 쇠락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이 한국 신발·봉제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대거 생산기지를 이전하자, 1980년대 중반이 1,500명 정도의 현지 한인 수가 1990년대 초에는 1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다. 1990년 전후로 인도네시아 한인공동체는 양적으로 팽창해 큰 변혁기를 맞으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와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다. 대규모 생산 및 관리 인력이 처음 해외에 파견되었지만, 사전에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 작업환경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표준설명서가 없어서 현지 직원과 갈등과 마찰을 빚어, 빈번하게 한국기업의 어두운 면이 현지 언론에 보도됐다. 인도네시아에 초창기 진출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10대 섬유 제조 국가이며 섬유·봉제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 가운데 하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80년 후반에 높은 고용 창출로 노동시장을 이끄는 섬유·봉제산업을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했다. 때마침 한국 봉제기업들도 해외 생산기지를 이전을 모색하고 있던 터라 인도네시아 투자는 시의적절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이하 KOGA) 이원주 전 회장은 "1988년부터 한국 봉제업체들은 주로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에 먼저 진출했는데, 이는 앞서 종합상사들이 목재와 무역 등 다양한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펼치면서 현지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남아가 투자지로 낙점했다"라고 설명



제한 한인회장은 "당시 한국계 업체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장을 기동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바이어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납기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회고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봉제업체를 비롯한 한국계 기업들은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1990년 중반기부터 미국 바이어들이 수입산을 중국, 베트남 등지로 옮기면서 일부 한국계 봉제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어 2001년 9·11테러 이후 일부 미국 바이어들이 인도네시아를 이탈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교도를 둔 국가라는 게 이유였다. 한국 섬유·봉제업체가 거울을 지니 봄을 맞게 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 WTO(세계무역기구)의 섬유협정에 의한 섬유 수입쿼터가 전면 해제된 후,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은 미국과 EU(유럽연합) 수출에 경쟁력을 되찾게 됐다. 더욱이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이후 중국의 생산원가가 급속도로 인상되면서 일부 중국 수출주문이 인도네시아로 되돌아왔다. 이 무렵인 2000년도 중반 수출 주문이 인도네시아로 몰리면서

재한 한인회장은 "당시 한국계 업체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장을 기동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바이어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납기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회고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봉제업체를 비롯한 한국계 기업들은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1990년 중반기부터 미국 바이어들이 수입산을 중국, 베트남 등지로 옮기면서 일부 한국계 봉제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어 2001년 9·11테러 이후 일부 미국 바이어들이 인도네시아를 이탈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교도를 둔 국가라는 게 이유였다. 한국 섬유·봉제업체가 거울을 지니 봄을 맞게 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 WTO(세계무역기구)의 섬유협정에 의한 섬유 수입쿼터가 전면 해제된 후,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은 미국과 EU(유럽연합) 수출에 경쟁력을 되찾게 됐다. 더욱이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이후 중국의 생산원가가 급속도로 인상되면서 일부 중국 수출주문이 인도네시아로 되돌아왔다. 이 무렵인 2000년도 중반 수출 주문이 인도네시아로 몰리면서

KOGA지 ...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와 함께 한 100개월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 월간 신문 코가지 출력이 벌써100개월 8년 4개월이다. 당시 박재한 회장, 김동석 사무총장의 재임기간이었다. 박재한회장은 인도네시아 한인봉제기업과 관련기업이 많고 각 지역별 산재해 있는 현황을 논하면서 우리 봉제기업을 하나의 공감대로 만들 수 있는 방향의 일환으로 코가신문을 발행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필자는 봉제산업에 전혀 경험과 지식이 없던 터라 다소 난감했지만 신문과 매거진을 만드는 작업을 가진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미와 보람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흔쾌히 받아들였고 창간호를 기획하고 100개월전 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다. 인쇄 손익산생에게 제호를 받았고 KOGA 사무국위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KOGA지가 탄생하고 지령 100호를 맞이하게 되었

히 공장을 이전하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인도네시아 섬유·봉제산업에 꾸준히 투자를 왔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대인도네시아 외국인 누적 투자 건수에서 한국 진출 기업이 가장 많고 투자금액 기준으로 2위를 차지했다. 2025년 기준 KOGA 총 회원사는 231개 업체이고 KOGA 회원사의 고용 인구는 대략 32만명 정도로 고용면에서도 인도네시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 전체 섬유·봉제 수출실적은 130억 달러이며, 이 중 30%가 한국계 업체가 수출하고 있다. 봉제 부문만 본다면, 인도네시아 봉제 수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인도네시아 수출에 기여도가 매우 높다. 한국뿐만 아니라 현지 한인사회에서도 봉제산업은 전망이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한국 젊은 층의 신규 인력 유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과거 봉제산업의 성장을 일군 고령화된 봉제 장인들이 버티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봉제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원주 전 KOGA 회장은 "과거에 봉제는 기술이



KOGA지 ...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와 함께 한 100개월



▲KOGA지 표지사진을 두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약 1,000여업체에 무상으로 배부되고 있으며 약 10,000여명, 23개국에 개별 SNS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KOGA지 지령 100호는 KOGA회원의 시련과 고난을 100개월간 함께 해온 친구이자 동반자였으며 지령100호를 시작으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한결

기승부리는 ‘라벨 같이’ , 인도네시아 2위… 단속 너머 ‘제조업 생태계 복원’ 답없나

최근 5년간 적발 규모 2천억 육박 … 중국산이 95% 압도적 인도네시아·베트남산 적발 잇따라 … ‘메이드 인 코리아’ 신뢰 위협 “단속 만능주의 벗어나야 … 외국인 인력 개방 등 제조 기반 확충 시급”



최근 5년간 한국내 유통 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된 이른바 ‘라벨 같이’ 상품 규모가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산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산 제품의 라벨 같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한국내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단속 강화는 넘어, 봉기 유예에 처한 국내 제조업의 생산 기반을 되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5년간 ‘라벨 같이’ 1,979억 원… 중국·인도네시아산 주류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현재까지) 적발된 라벨 같이 상품 규모는 총 1442억, 금액으로는 1,979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라벨 같은은 해외에서 수입한 완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교체하여 한국산(Made in Korea)인 것처럼 속여 유통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국가별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중국산 제품이 1,894억, 1,200만 원(127건)으로 전체 적발 금액의 95.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내 생산 기반은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행 주기가 짧은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데, 국내 생산 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유통업체들은 납기와 단가를 맞추기 위해 이미 완제품 형태의 생산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산 저가 제품을 들여와 라벨만 바꿔 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단속이 강화되더라도 한국내 생산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라벨 같은은 근절되기 어려운 ‘생존형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인력 개방 등 고령화 대응 필요”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와 관계 당국이 인력 유입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제조업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속이 적발 건수를 늘리는 탁상행정으로는 라벨 같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가장 시급한 대응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 규제 완화’를 꼽는다. 제조업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취업비자(9-9) 등 규제를 대폭 확대하고, 숙련 기능 인력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여 합

인도네시아 정부, ‘섬유 산업 부활’ 승부수… 섬유국영기업 설립 검토 착수 아르랑가 장관 “집중 검토 단계, 구체적 시점 미정” … 다난타라 통해 60억 달러 ‘실탄’ 확보 프라보워 대통령 지시 따른 후속 조치, 일자리 창출 및 수출 경쟁력 제고 목표

글로벌 경쟁 심화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위기를 맞은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의 재건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면밀히 연구 중"이라며 "다만 현재 검토 과정이 진행 중인 만큼, 대중에게 발표할 만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리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신중하게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에너지 부문의 국영광물회사(Pernitas)와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법인이 설립될지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번 국영기업 설립 검토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5일 자카르타 대통령궁 단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현재 섬유 부문 특별 국영기업 설립 계획을 집중적인 검토 단계에 올려놓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르랑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정부는 섬유 산업 회생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면밀히 연구 중"이라며 "다만 현재 검토 과정이 진행 중인 만큼, 대중에게 발표할 만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리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신중하게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에너지 부문의 국영광물회사(Pernitas)와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법인이 설립될지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번 국영기업 설립 검토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5일 자카르타 대통령궁 단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현재 섬유 부문 특별 국영기업 설립 계획을 집중적인 검토 단계에 올려놓고 있다"고 공식 발표

가능한 투자라면 설정된 수익률 기준보다 다소 낮더라도 투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동 집약적인 섬유 산업이 가진 높은 고용 흡수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신규 섬유 국영기업 설립이 확정되었느냐는 질문에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으며, 우리는 여러 선택지를 열어나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맺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기업 설립을 넘어,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을 국가 주도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정부의 최종 결정이 침체된 인도네시아 섬유 시장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어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인포스트]